https://doi.org/10.18856/jpn.2026.32.3.015

최근 어린이·청소년 SF의 전복성 연구
- '보슬비 SF 추천작'을 중심으로

최배은*

1. 서론
2. 어린이·청소년 SF의 전복적 양상
3. 어린이·청소년 SF의 전복적 구조
  3-1. 지구 어린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락방 외계인〉
  3-2. 디스토피아 기계기술자 '심청의 저항' 이야기 〈깊고 푸른〉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어린이·청소년 SF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밝히는 비평을 지향하며,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을 대상으로 전복적 양상을 분석하며 그 특성 및 의의를 짚어 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보슬비 SF' 추천작 중 전복성이 두드러진 어린이 SF 〈다락방 외계인〉과 청소년 SF 〈깊고 푸른〉이다.

〈다락방 외계인〉은 사업이 망하거나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도시 빈민, 난민들의 절박하고 치열한 생존 이야기이다. 강자 표상의 어른, 지도자, 외계인을 약자로 전복시켜 위기 앞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서로 연대하게 한다. 마침내 주인공 노아의 다락방은 집 잃은 자들을 수용하고 살리는 노아의 방주로 기능하여 어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어린이 노아의 이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연구교수

www.kci.go.kr

야기로 뒤바꾼다. 〈깊고 푸른〉은 고전소설 〈심청전〉을 SF로 다시 쓴 것이다. 용왕을 두려워하는 신화적 세계를 기술 과학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계로 변형해 〈심청전〉의 희생 서사를 저항 서사로 전복하며 부조리한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길은 순응과 적응만이 아니라는 진실을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 어린이·청소년 SF는 현실의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반영하며 그 해결의 주체로 어린이·청소년 인물을 창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약자나 사회화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저항하는 주체이자,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며, 그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나아가 근대의 지배적 이념을 성찰하고 대안 서사를 모색하는 데 어린이·청소년 SF가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어린이·청소년 SF의 특징 중 하나인 전복성을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규명하고, 어린이·청소년 SF의 사회적 가치를 밝힌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어린이·청소년 SF, 전복성, 어린이 노아, 저항하는 심청)

1. 서론

환상문학과의 차이로 SF의 정체성을 선명히 한 다르코 수빈의 견해[1]가 상식처럼 통용되면서도 SF는 여전히 환상문학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으

1) 다르코 수빈은 SF를 인지적 소외의 문학으로 정의하며 신화, 민담, 환상문학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Darko Suvi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Peter Lang Gmbh, Internationaler Verlag Der W, 2016, 2장 참조.

www.kci.go.kr

며, 그와 동떨어져 논하기 어렵다. 그것은 무엇보다 SF가 현실의 모방에 목표를 둔 사실주의 문학과 다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현실의 모방이란 불가능하며, 이호의 말처럼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의 모방"[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독자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수용하게끔 쓰는 사실주의 소설과 그 반대의 소설은 양식과 표현 기법, 효용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요컨대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이라는 소설의 정의에 비춰볼 때 판타지와 SF의 차이는 그들과 사실주의 소설의 차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즉 판타지와 SF는 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재현하여 현실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토도로프나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을 "많은 관련 장르들을 출현시키는 하나의 문학적 양식"[3]으로 보며, SF를 경이문학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에서 SF는 부수적이며 예외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은 환상을, 우리를 안심시키는 확실한 거짓말이나 착각이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느끼고 지각하는 데서 발생하며, 그에 따른 두려움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성이 알레고리나 상징주의로 '자연화될' 때 그것은 그 고유한 비-의미화의 본질을 잃는다"[4]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익숙하고 선명한 의미를 전달하여 어떤 머뭇거림이나 두려움도 주지 않는 환상은 그 본질에서 멀어진 것으로 본다. 나병철도 본격문학의 미학적 환상과 동화나 대중문학의 판타지 장르에서의 환상을 구분하며 동화나 판타지 소설에서는 "환상의 현실적 의미보다는

2) "'소설은 실제 현실의 모방이다'라는 오랜 명제는 모방된 결과의 객관성이나 충실성 정도를 가늠하는 의미로서보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의 모방, 즉 그런 모방에 부수되는 제약 조건들의 모방이란 의미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호, 『서사적 재현의 역학-반복과 전복』, 서강대학교출판부, 2020, 8쪽.
3) 로즈 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 17쪽.
4) 위의 책, 60쪽.

www.kci.go.kr

판타지의 상상력 자체에 더 중요성이 두어진다"[5]고 본다.

이와 같이 20세기 이론가들은 "다소 경박하거나 형편없는 것으로 무시되어왔던 문학 형식에 대해 진지한 비평적 작업을 고무시"[6]키기 위해 문학성이나 예술성이라는 기준으로 작품들을 위계화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작품들은 소외시키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언급한 다르코 수빈도 SF를 본격문학의 범주로 편입시키기 위해 애쓰며, 그만큼 대중들이나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SF와 거리를 둔다.[7]

하지만 21세기 현실에서 생각해 보자. 예술과 상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과학기술이 우리의 상상을 압도하며, 이미 온갖 환상서사들이 창작되어 수많은 두려움들이 익숙해진 시대에 세속화되지 않은 환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판타지의 인기는 식지 않고 더해가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22년에 출간된 브라이언 애터버리의 『판타지는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은 그 탐구의 여정에서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책은 "판타지 문학의 본질은 계속해서 변한다"[8]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 표현처럼 브라이언 애터버리는 어떤 고정된 본질을 상정

5)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04, 62쪽.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동화와 판타지 소설은 일차적으로는 리얼리티의 표현과 직접 연관을 지니지 않는다. 미학적 환상이 비현실적인 동시에 리얼리티의 표현인 것은 실재계와의 교섭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화와 판타지 소설은 (현실의 중핵인) 실재계와의 교섭보다는 무의식적 본성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더 관심을 갖는다." 위의 책, 63쪽.

6) 로즈 메리 잭슨, 앞의 책, 14쪽. 이 말은 로즈메리 잭슨이 토도로프의 저작이 지닌 가치를 평가한 말이다.

7) "과학소설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청소년이나 대중문학의 퇴비 더미 속에 그 뿌리의 일부를 두고 있었으며,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흡수하고 넘어서야 했다. (SF has historically had one of its roots in the compost heap of such juvenile or popular subliterature, and in order to develop properly it has had to subsume and outgrow it)" Darko Suvin, 앞의 책, 22쪽.

8) 브라이언 애터버리 , 『판타지는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 신솔잎 역, 푸른숲, 2025, 5쪽.

www.kci.go.kr

하여 기준을 삼지 않고, 이제까지 존재해온 판타지 작품들과 관점들을 모두 아울러 수평적으로 논한다. 아홉 가지 관점으로 논하는 주제에는 신화도, SF도, 환상동화도, 유토피아 문학도, 구조주의적 관점도, 정치사회적 관점도, 젠더적 관점도 모두 같은 무게로 논의된다. 이들을 통합하는 핵심 질문은 판타지가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는가와 판타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이다.[9] 어린이·청소년 SF를 진지한 비평 대상으로 탐구할 때 이 관점은 유용하다. 덧붙여 이 관점은 어린이·청소년 SF가 진실을 말하는 판타지이며, 어린이·청소년 독자들뿐 아니라 이 세계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로즈메리 잭슨은 문학에서의 환상성이 전복적 기능을 한다고 보아 환상문학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부각시킨 의의가 큰데, 어린이·청소년 문학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온 작품들이 있다. 전복성(顚覆性, subversiveness)은 기존의 권력, 질서, 규범, 가치체계, 담론을 흔들거나 뒤집는 성격을 의미하는데, 실존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은 그들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해 전복적 욕망을 가질 수 있는 한편, 미래의 어른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어린이·청소년 SF의 전복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장애 아동의 신체성[10]과 여성주의

9) "시대를 불문하고 판타지는 몇 가지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현실이라는 기존 관념을 탈피해야 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대상들의 연결성을 밝혀내야 하며, 사실 같은 거짓말을 해야 한다. 답이 계속해서 달라지더라도 판타지에 대한 질문들은 거의 한결같다.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결국 두 가지 질문이 자리한다. 첫째, 판타지가 어떻게 의미 있을 수 있는가? 물리법칙을 비틀고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스토리텔링의 한 형태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파고드는 통찰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 둘째, 판타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판타지는 소설 속 캐릭터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독자들의 세계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위의 책, 6쪽.

10) 김민령, 「포스트 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아동청소년 SF 서사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9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269-299쪽.

www.kci.go.kr

적 연구[11]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이다.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전복성에 대한 연구는 리얼리즘 동화[12]나 환경동화[13]에서 윤리성과 결부된 연구, 그리고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빌어 아동문학에 나타난 카니발적 특성을 분석하며 그것의 전복적 기능을 고찰하는 연구들[14]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한국 아동문학이, 기존의 아동을 균질한 존재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의 물질성과 개별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한다.[15] 하지만 주로 아동 개인의 욕망이나 관계에 관심을 두어 사회정치적 측면에서의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는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기 위해 서사 구조적 측면에서 전복성을 탐구한다. 즉 어린이·청소년 SF가 기존의 어린이·청소년 소설의 구조를 어떻게 전복시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사 요소들을 서사 텍스트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서술이 수행하는 반복과 전복의 역학"[16]을 분석할 것이다. 전복은 이미 만들어진 무언가를 전제한

11) 김유진, 「최근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여성주의적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03-228쪽. 이 논문의 4장에서 『옆집의 영희씨』(정소연, 창비, 2015)를 분석하며 SF 어린이청소년소설의 소수자 문학의 가능성을 말한다. 송수연도 평론 「우리에게 우주가 필요한 이유」(『우리에게 우주가 필요한 이유』, 문학동네, 2022)에서 『옆집의 영희씨』를 분석하며 청소년 SF에서 소수자 재현의 의의를 역설한다.

12) 박성애,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323-350쪽; 박성애, 「한국 아동서사문학의 '학교' 공간에 나타나는 권력의 양상과 전복의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279-307쪽.

13) 김중선, 「환경동화에 형상화된 동물의 삶과 아동」,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4, 43-97쪽.

14) 송방근, 「황선미 동화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유희경, 「힘의 관점에서 살펴 본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문학 연구-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참조하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경소현, 「판타지 동화의 카니발적 특성과 유형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5) 유희경, 위의 글, 209쪽.

www.kci.go.kr

다. 다시 말해 서사적 재현은 현실 세계나 이야기 관습의 모방, 즉 반복에 해당하므로, 서사적으로 전복적 양상을 분석하려면 익숙한 요소들의 뒤집어진 반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어린이·청소년 SF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밝히는 비평을 지향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근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을 대상으로 전복적 양상을 분석하고 그 특성 및 의의를 짚어 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보슬비 SF 추천작'이다. 보슬비 SF 추천작은 2022년부터 어린이·청소년 문학 전문가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출간된 어린이·청소년 SF를 최대한 조사, 검토한 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 발표한 것으로 최근 어린이·청소년 SF의 경향을 살피기에 적합하다.[17]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보슬비 SF 추천작은 어린이 SF 10편, 청소년 SF 11편으로 총 21편이다.[18] 이 논문에서는 먼저 대상 작품들의 전복적 양상을 살피고, 특히 전복성이 두드러진 어린이 SF 〈다락방 외계인〉[19]과 청소년 SF 〈깊고 푸른〉[20]의 전복적 구조를 분석한다.

16) 이호, 앞의 책, 17쪽.

17) 보슬비SF는 어린이·청소년 SF를 함께 읽고 연구하는 모임인 어린이청소년SF연구공동체 플러스알파 - 어린이·청소년 문학 작가(박용숙, 이풍, 정재은), 평론가(송수연, 심지섭), 연구자(최배은)로 구성 - 에서 선정한다. 2025년 '보슬비 SF의 밤'에서는 보슬비 SF 추천작 선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한 소책자 『어린이·청소년 SF에는 플러스알파가 있다 -보슬비 SF 추천작 선정 기준』을 발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그 기준 중 '다양성'은 '여성과 성소수자들, 나아가 비인간 존재들을 타자화하지 않은 성찰적·비판적·전복적 태도를 지닌 작품'이다.

18) 그 목록은 '참고자료 1. 기본 자료'에 밝혀 두었다.

19) 이귤희, 『다락방 외계인』, 해와나무, 2021.

20) 박애진, 「깊고 푸른」,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 사계절, 2022.

www.kci.go.kr

2. 어린이·청소년 SF의 전복적 양상

보슬비 SF 추천작들에서는 주로 인물의 표상과 기능에서 전복적 양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작품 구조의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의 행위자로서 갖는 인물의 특질, 즉 기능적 성격[21]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크게 어린이·청소년 인물과 여성 인물의 기능적 성격, 외계인·AI·NPC의 표상 및 기능적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어린이나 청소년 인물은 폭압적인 사회의 희생양으로 그려지며 그러한 사회의 비극성과 부당함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문학에서도 어린이, 청소년의 희생서사 비중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청소년 SF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인물이 부조리한 사회의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어른들이 만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디스토피아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사회, 또 돈 때문에 생명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사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희생하지 않고 어른들이 갖지 못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앞으로 해결하리라는 기대감을 준다. 이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능력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정신적, 정서적인 데 있으며, 소통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만드는 데 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인 〈불을 지피는 악마들〉[22]에서 어른들은 지상과 지하 세계로 갈라져 서로를 악마화하며 못살게 굴지만, 어린이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뛰어 넘어 희망을 만든다. 동물을 캔으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된 근미래의 이야기 〈애니캔〉[23]에서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어른들과 달리, 어린이들이

21) 예를 들어 주인공, 조력자, 적대자 등은 기능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0, 199-207쪽 참조.
22) 최영희, 「불을 지피는 악마들」, 『종말의 아이들』, 소원나무, 2022.

www.kci.go.kr

나서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진실을 폭로한다. 이러한 점들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어린이·청소년 SF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역할이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른 과학자를 관찰하고 보조하는 데 머물렀던 것과도 다르다. 그 요인 중 간과되어선 안 될 한 가지는 작품 속에서 제기하는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의 변화이다. 최근 작품들에서는 과학 기술이나 경제적, 물리적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혐오,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사회 문제를 제기하므로 그에 물들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비판적 시선과 용기 있는 행동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인물은 어린이·청소년 문학에서 자기 욕망을 억제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가부장제 하의 폭력적인 남성들에게 학대당하고, 또 다른 남성들에게 구원받으며 이야기의 감상성과 낭만성을 고조시키는 한편, 남성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특히 할머니, 어머니, 언니 등 여성 인물은 주로 가정 안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가부장에게 예속되고 순종적인 존재로 그려져 젠더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어린이·청소년 SF에서도 여성 주인공이 드물 뿐 아니라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남성의 시선이 그대로 투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청소년 SF에서는 여성 주인공 비중이 높으며 그들의 외모나 하는 일도 성별 고정관념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기 욕망과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전통적으로 남성 주인공들이 수행했던 역할, 곧 피해자보다 구원자 역할을 한다.

기후 위기의 미래를 경고하는 〈소녀 농부 깡지와 웜홀 라이더와 첫사랑 각성자〉[24]에서 여성 청소년 깡지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버섯 농사를 짓는

23) 은경, 『애니캔』, 별숲, 2022.
24) 문이소, 「소녀 농부 깡지와 웜홀 라이더와 첫사랑 각성자」, 『내 정체는 국가 기밀, 모쪼록 비밀』, 문학동네, 2023.

www.kci.go.kr

농부이다. 깡지가 미래에서 온 후손에게 토종 종자를 선물하고, 농사법을 알려주어 식량난에 처한 미래에 희망을 준다.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디스토피아 SF로 각색한 〈깊고 푸른〉의 주인공 심청도 제물로 바다에 바쳐지는 소녀가 아니다. 심청은 손재주가 뛰어난 기술자로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눈도 찾고, 벙크에 갇힌 세상을 구한다. 여성 인물의 활약은 비단 청소년 계층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2019년에 출간된 〈외계인 편의점〉의 연속물 중 마지막 편인 〈우주 가족을 찾아라〉[25]에서 박맹금 할머니는 로봇 부츠만 신으면 생기가 돌고, 육쪽마늘로 우주 뱀을 물리치며, 악당까지 포용하는 우주 영웅이다.

마지막으로 외계인과 로봇 등 지구인과 다른 존재들은 흥미로운 상상력을 부추기며 SF의 주요 소재와 관습으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인간중심적인 시선에서 비정상성을 상징하는 괴물이나 인간보다 못한, 인간의 노예적 존재로 그려지며 인간주의, 국가주의, 정상성 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각에서 휴머니즘의 이분법적 태도를 반성하고 경계하는 최근에는 어린이·청소년 SF에서도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인간 아닌 존재들이 이전보다 다채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타자가 아니다. 외계인과 여러 비인간은 인간성과 정상성의 경계를 흐리며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외계인을 다양한 외양으로 상상하고, 침략자나 적대자가 아니라 난민이나 이웃, 친구처럼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그린 작품들이 많다. 〈하늘 세숫대야 타고 조선에 온 외계인 나토두〉[26]에선 궁궐 지붕 위의 조각상이 조선 시대의 외계인이 되고, 〈다락방 외계인〉에서도 우주에서 온 크고 작은 다양한 생김새와 성격의 외계인이 등장한다. 〈나인〉[27]

25) 박선화, 『우주 가족을 찾아라』, 소원나무, 2024.
26) 송아주, 『하늘 세숫대야 타고 조선에 온 외계인 나토두』, 도토리숲, 2022.

www.kci.go.kr

의 주인공은 지구인과 별다를 바 없는 외모를 지녔지만, 식물과 대화할 수 있고, 땅을 빛내며 식물을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진 외계인 누브족이다. 이런 외계인들은 두렵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여서 지구인과 친구나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 〈우주학교〉[28]에서는 우주의 한 공간에 학교를 세워 세 행성인들이 함께 공부하며 서로 다른 관습과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을 그린다. 〈자코메티〉[29]에선 지구가 외계 종족의 침략을 받지만, 그 무질서한 세계에서 남성, 인간들의 잔혹함이 부각되며 마침내 두 주인공 소녀가 오히려 외계로 탈출하여 기존의 외계 침략 서사를 전복한다.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로봇 인물은 지능이 높은 AI 비중이 커졌고, 메타버스 기술의 상용화로 컴퓨터 속 NPC도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처럼 인간의 보조자나 의인화된 인간에 머물지 않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초점에서 사건들을 이해하게 한다. 〈사탕비〉[30]는 생존을 위해 사람들 중에서 안드로이드를 찾아야 하는 추리게임 형식을 취하며 사람과 안드로이드의 경계를 허물고, 〈구름이는 어디로 갔나〉[31]에선 인간은 AI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일 뿐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AI의 욕망과 추리, 목소리로 전개된다. 〈틈새의 클로버〉[32]에서도 가상현실게임에 접속한 인간과 NPC가 등장하지만 NPC를 초점자로 사용하여 NPC의 욕망과 상실감이 부각된다. 가상현실게임 속 모험을 제재로 한 〈영원한 페이스메이커〉[33]에서도 장애인이나 NPC가 게임 속에서 동

27) 천선란, 『나인』, 창비, 2021.
28) 김동식, 『우주 학교』, 학교도서관저널, 2024.
29) 듀나, 「자코메티」, 『녹아내리기 일보 직전』, 문학동네, 2024.
30) 청예, 『사탕비』, 고즈넉이앤티, 2023.
31) 김이환, 「구름이는 어디로 갔나」, 『일상탈출구역』, 책담, 2022.
32) 문유운, 「틈새의 클로버」, 『도마뱀 구름의 꼬리가 사라질 때』, 사계절, 2023.

www.kci.go.kr

등하고 자유롭게 모험을 즐긴다.

이와 같이, 최근 어린이·청소년 SF는 근대 사회와 이야기 관습에서 타자화되었던 어린이, 여성, 비인간 존재들을 능동적인 주체로 전복시키며 이야기의 개성과 재미를 창출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 모순을 보다 신선하고 인상 깊게 폭로한다. 보다 심층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 SF 〈다락방 외계인〉과 청소년 SF 〈깊고 푸른〉의 구조를 그 서술 요소의 반복과 전복의 역학으로 분석한다.

3. 어린이·청소년 SF의 전복적 구조

3-1. 지구 어린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락방 외계인〉

〈다락방 외계인〉은 사업이 망하거나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도시 빈민과 난민들의 절박하고 치열한 생존 이야기이다.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작된 SF이지만, 우리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배어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게 하고, 타인을 구함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진실을 설득력 있게 재현한다.

〈다락방 외계인〉에서 반복 서술되는 사건은 집에서 내쫓기거나 그럴 위기이다. 위기가 닥친 인물별로 그 서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아	외계인	삼촌
① 아빠는 치킨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했지만 쫄딱 망했어.	③ 어느 날 갑자기 검은 군대가 내가 살던 별과 집을	

33) 지슬영, 『영원한 페이스메이커』, 별숲, 2023.

www.kci.go.kr

<table>
<tr><td>결국 집과 직장을 잃은 아빠는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되었지.(12쪽)</td><td>빼앗았어. (37쪽)</td><td></td></tr>
<tr><td>②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개한 지구에 있지만 날 구할 우주선이 곧 올 거야. 그때까지 누추하고 더러운 여기에 있어야 하니까 넌 여기서 나가. 이건 명령이야.(29쪽)</td><td>④ 노아는 삼촌이 딴 곳을 보는 사이에 얼른 치르의 더듬이를 잡고 창문을 열어 밖으로 던져 버렸어.(31-32쪽)</td><td></td></tr>
<tr><td colspan="2">⑤ 노아는 외계인들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 삼촌한테 들키면 모두 쫓겨날 테니까 말이야.
⑥ "당장 내 집에서 나가!"(70쪽)</td><td></td></tr>
<tr><td colspan="3">⑦ "집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우릴 쫓아낸대요."(79쪽)
⑧ "외계인은 자기 별로 돌아가라!"(97쪽)
⑨ 삼촌은 식당에 다시 출근했지만 며칠 뒤에 쫓겨났어.(100쪽)</td></tr>
</table>

〈표1〉

아홉 살 어린이 노아는 아빠의 치킨 가게가 망해서 집을 잃고 할아버지 동생의 아들인 삼촌에게 맡겨진다.(①) 삼촌네 다락방에서 지내게 된 첫날, 노아는 링가별에서 온 외계인 치르에게 방에서 나가라는 도전을 받는다.(②) 하지만 소시지처럼 작은 치르는 큰소리만 칠 뿐 힘은 없어서 노아에게 위기감을 주지 않는다. 다락방에서 지내는 노아와 외계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집 주인인 삼촌이다. 외계인들의 존재를 발견한 삼촌은 노아와 외계인들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친다.(⑥) 노아와 외계인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 사건이다.

치르는 링가별 지도자인데 우주를 정복하려는 검은 군대에게 자기 행성을 빼앗겨 삼촌네 다락방에 은신 중이다.(③) 처음에는 노아로부터 다락방

www.kci.go.kr

을 빼앗길까봐 견제하지만, 노아의 도움을 받고부터 노아와의 동거를 수용한다.(④) 즉 치르와 노아는 삼촌이라는 공동의 적대자 앞에서 연대한다. 하지만 삼촌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직장에서 쫓겨난다.(⑦, ⑨) 이 반복은 쫓아낼 권한을 가진 자를 쫓겨나는 자로 전도시킨 사건으로 이후 여러 전복적 사건의 기점이 된다. 그리고 삼촌의 위기는 노아와 외계인들의 위기이기도 하므로, 집 밖의 적대자 앞에서 집 안의 삼촌, 노아, 외계인들은 연대한다.

이 작품에서 성격이 가장 크게 바뀌는 인물은 삼촌이다. 집 주인의 권한으로 폭언과 압제를 행사하던 삼촌이 집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노아처럼 약한 모습을 보인다.

> 삼촌은 울먹이며 고개를 흔들었어. 삼촌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는 것 같았어. …(중략)…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나를 떠나. 엄마도, 메리도, 이젠 집도 떠나네." 노아는 좋아하는 건 모두 떠난다는 삼촌이 불쌍했어. 혼자 남은 노아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 노아는 삼촌 등을 토닥였어. 노아의 위로에 삼촌은 더 크게 울었어.(87-89쪽)

위와 같이 노아가 무력해진 삼촌을 동정하며 등을 토닥이는 모습에서 관습적으로 익숙한 어린이와 어른의 이미지가 뒤바뀐다. 노아는 어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나아가 어른을 구하는 인물이다. 노아는 타인의 위기 앞에서 구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노아가 처음 구한 인물은 치르이다. 치르의 나이가 제시되지 않지만 링가별 지도자라는 신분을 볼 때, 치르도 어른임을 알 수 있다. 노아는 삼촌에게 붙잡힐 뻔한 치르를 창문 밖으로 내던져 구한다. 그럼에도 노아는 치르를 쫓아낸 게 마음에 걸려 만약 노아네 집에 갈 곳 없는 누군가가 온다면 절대 쫓아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www.kci.go.kr

이와 같이 노아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덕분에 타인을 구한다. 우주의 침략자들 때문에 난민이 된 외계인 푸푸와 라이들을 방 안에 받아준 일도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치르가 소시지처럼 작고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삼촌이 고압적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즉 이 이야기에서는 어린이를 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어린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대신 권위적인 어른의 힘을 빼는 전략을 사용한다. 약자가 되어버린 어른은 더 이상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려 들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 연대하고 의지한다.

이는 기존의 사실주의 소설에서 약자 어른이 소년소녀 가장과 짝을 이루어 등장하며 어린이·청소년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과 다르다. 그 비결은 외계인에 있다. 〈다락방 외계인〉에선 지구의 어린이가 외계인과 연대하여 그 힘으로 희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외계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집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먼저, 집 밖 사람들의 외계인에 대한 편견과 공포심을 이용해 외계인이 있는 한, 이 집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외계인에 대한 편견은 외계인과 함께 사는 삼촌에게까지 미쳐 삼촌을 실직자로 만든다. 이 위기는 바로 외계인들이 가진 능력을 상품화해서 해결한다. 푸푸는 어떠한 고민이나 불행감을 가진 이들도 따뜻하게 품어주어 치유할 수 있고, 라이들은 고장난 사물을 고칠 수 있다. 편견과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던 손님들은 한 명의 절박하고 용기 있는 손님의 소비 사례로 이용자가 많아진다. 푸푸와 라이들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삼촌은 집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구름 같고 소시지 같고 까만 별 같이 귀여운 형태에 돈을 벌어 지구인을 먹여 살리는 외계인은 세속화된 외계인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주는 감동과 진실이 약화되진 않는다. 오히려 외계인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온 지구인보다 강한 침략자 이미지를 전복시킨 약자 외계인은 독

www.kci.go.kr

자와의 거리를 좁힌다. 즉 어른뿐 아니라 외계인도 사회적 약자로 전복시켜 어린이가 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다.

강자 표상의 어른, 지도자, 외계인을 사회적 약자로 전복시킨 매개는 바로 집이다. 집을 잃는다는 것은 주거 공간의 상실 이상으로, 말해지지 않은 다른 많은 서사가 잠재된 사건이다. 집을 잃는 사건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쿠데타, 혁명, 전쟁,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 이유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얻는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의, 지구인에게 결핍된 능력을 가지고 큰 도움을 주는 난민 외계인은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의의가 크다.

노아가 처음 아빠 손에 이끌려오면서 본 이 집은 외눈박이 괴물의 집이었으나, 노아가 집 잃은 자들에게 한자리씩 내어주니 서로를 살리는 온기 가득한 공간으로 바뀐다.

> 밤이 되자 창문이 깨진 1층은 냉장고 속처럼 추웠어. 모두 추위를 피해 다락방으로 올라갔지. 외계인들과 노아와 삼촌은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버텼어.(87쪽)

위의 인용은 집의 성격이 전복되는 순간을 가장 잘 드러낸 서술이다. 외부인의 침입으로 1층 자기 방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된 삼촌은 이제 집 주인이 아니라 똑같이 집 잃은 자가 되어 노아와 외계인들의 공간에 자기 한 몸을 의탁하게 된다. 이렇게 다락방은 매우 비좁지만 집 잃은 자들을 모두 수용하고 살리는 '노아의 방주'로 기능한다.

요컨대 〈다락방 외계인〉은 성경에 나오는 어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어린이 노아의 이야기로 바꾸면서 위기의 세계에서 어린이의 의의를 환기

www.kci.go.kr

시킨다. 반복되는 요소가 '노아'와 '집'의 상징적 의미 정도로 많지 않지만, 신의 권능에 의지해 구원받는 성경 이야기가 어린이 SF에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어른, 외계인이 연대하여 서로를 구하는 대안 서사로 전복된 것이다.

3-2. 디스토피아 기계기술자 '심청의 저항' 이야기 〈깊고 푸른〉

〈깊고 푸른〉은 고전소설을 SF로 다시 쓴 단편집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에 수록된 작품이다. 다섯 편의 고전소설을 재창작한 작품 중 전복성이 두드러진 청소년 SF는 〈깊고 푸른〉뿐이다.[34]

〈깊고 푸른〉은 〈심청전〉을 SF로 다시 썼다. 인신공희설화를 바탕으로 효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심청전〉은 한때 교과서에 실리며 어린이, 청소년의 필독서로 권장되어왔으나 1990년대 이후,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되면서 비판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으며, 비판적 관점에서 다시 쓴 재창작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35] 〈깊고 푸른〉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인데, 신화적·봉건적 세계관에 기반한 고전소설을 전복시키는 방편으로 SF를 활용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심청전〉을 반복

34) 〈토끼전〉을 다시 쓴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는 토끼 역할을 하는 주인공 소녀가 지혜로 용왕 역할을 하는 용공주를 물리치는 이야기로 원작과 유사하고, 〈해님 달님〉을 다시 쓴 〈밤의 도시〉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밤길에 탐색하는 청소년들의 성장 이야기로 재해석해 거의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장화홍련전〉을 다시 쓴 〈부활 행성-홍련의 모험〉도 홍련이 죽지 않는 것 외에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랐으며, 〈흥부전〉을 다시 쓴 〈흥부는 답을 알고 있다〉는 놀부 초점에서 흥부가 부자된 내막을 서술하여 전복적 측면이 있지만, 청소년 SF로 보기 어렵다.

35) 그런 작품으로 이경혜,『심청이 무슨 효녀야?』, 바람의아이들, 2008; 배유안, 『뺑덕』, 창비, 2014; seri 글, 비완 그림, 〈그녀의 심청〉, 위즈덤하우스, 2018 등을 들 수 있다.

www.kci.go.kr

하며 전복한 이야기이므로 그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 〈깊고 푸른〉은 '심청'을 한글로 풀어쓴 것 같지만, 고전소설과 그 뜻이 다르다. 〈심청전〉의 심청(沈淸)은 '성씨 심'으로도 쓰이는 '잠길 침'과 '맑을 청'으로 이루어졌다. 沈淸이 바닷물에 잠기며 욕심 없는 인물의 특징을 드러낸다면, 〈깊고 푸른〉은 작품의 주요 공간인 인당수를 나타낸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청이란 이름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박애진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밝힌 것처럼 옛이야기에서 "마냥 수동적이었던 원작의 인물들, 특히 여성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인물로 재창조"[36]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작가는 용왕을 두려워하는 신화적 세계를 기술 과학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계로 바꾼다. 심청이 아버지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당수에 뛰어드는 사건은 반복하지만, 그 인과성을 형성하는 사건을 변형시키며 운명적인 요소를 최소화한다. 그 대표적인 제재가 '눈'이다.

본래 이야기에서 사건의 발단은 맹인 심학규가 눈을 뜨고 싶어 스님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한 일이다. 즉 이때 시각장애는 운명적인 일이고, 그 해결도 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깊고 푸른〉에서는 '눈'의 특질을 달리해 이 사건을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따른 문제로 바꾼다. 여기서 심청의 아버지 눈은 인공물로 훌륭한 품질을 갖춰 누구나 탐내며 양도나 탈취가 가능하다. 그 눈은 심청의 할머니가 인당수 아래에 있는 광산에서 찾아온 것으로 아버지에게 물려준 것이다. 심청의 집안은 대대로 부품 수리 기술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희미한 불빛 하나까지도 모조리 빨아들여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게 해"(11쪽) 주는 그 눈은 가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도 언젠가 심청에게 물려주려고 애지중지하던 그 눈을 정부고위 기술자가

36) 박애진·임태운·김이환·정명섭·김성희,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 사계절, 2022, 81쪽.

www.kci.go.kr

드라이버로 빼 간다. 즉 〈깊고 푸른〉에서 아버지는 지배 계급의 약탈로 눈을 잃는다. 이 변형은 심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버지 개인의 시련과 근심이 아니라 탐욕스런 지배 계급이 만든 부조리한 사회 구조로 확장시키며 갈등의 성격을 바꾼다. 거기에 심청이 목숨을 걸고 인당수로 들어가 해결해야 할 과업이 이 사회 전체의 존속과 관련된 일이기에 심청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모험은 곧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된다.

〈심청전〉을 SF로 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자연에서 운명을 점치며 자연의 자비를 구하던 사회를 자연을 상실한 채 기계 문명에 의존한 디스토피아 사회로 바꾼 점이다. 두 눈을 드라이버로 빼 가고, 다리를 다치면 막대기 같은 도구로 끼워 넣거나 손목이 아프면 나사를 조여서 해결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안드로이드 같은 완전한 기계 인간은 아니다.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음식물을 먹어 소화시켜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즉 이 세계는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인간의 몸에 기계장치나 온갖 인공 시술이 가능하여 사이보그가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부품을 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재력과 지위만 있으면 특고위처럼 젊은 모습으로 100년을 훌쩍 넘겨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운 매우 불평등한 사회이다. 30년 전 일어난 대폭발로 벙크 속에 갇혀 살게 된 이후, 태양과 농사 지을 땅을 잃어서 사회의 생산력은 더 떨어지고 생존 여건은 척박해진다. 그럼에도 이 사회의 지배층인 정부 고위들은 주민들을 협박하고 착취하여 변함없는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러한 설정은 너무 전형적이라 진부하다. 그러나 그 교묘한 착취 구조와 그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기회주의적, 이기적 태도가 우리 사회의 일면을 풍자하고 있어 진실성을 획득한다.

"아빠 솜씨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어. 싸면 뭐 해.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는

www.kci.go.kr

데. 이런 식으로 당한 마을이 한둘이 아니라더라.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값이 싼 가게에 가는 게 당연한 거라나? 너 자유 시장 원리가 무슨 말인지 아니?"

"처음 들어요. 정부 고위들은 곰팡이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거무죽죽한 말을 퍼뜨려요."

"나도 얼마 안 남았다. 정부 고위가 여기에 바리 빵집을 만든대."

하마터면 드라이버를 떨어뜨릴 뻔했다.

"윗마을에 빵집 주르를 만들어서 원래 있던 빵집이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윗마을이나 다른 마을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형편이 나은 곳들이었어. 우리 마을처럼 작은 곳에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달려드는지……."(26-27쪽)

위의 인용은 청과 빵떡 할머니가 풍부한 자본을 가진 정부 고위들이 점차 시장을 확대하여 작은 가게들이 문 닫는 상황을 걱정하는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상기시킨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연상시키는 '바리'와 '주르'는 이 대화를 더 우리 현실의 알레고리로 읽게 한다. 한편 이 벙크를 만들고 광산을 폐쇄시키며 지배해온 이들을 과학자들로 설정해 과학 기술에만 의존하는 태도와 과학자들이 지배하는 세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대폭발 이전에는 과학인들이 보통 인간들을 다스렸어. 그중 우수한 과학인들이 대폭발을 예견하고 벙크를 지었지. 벙크는 기술구역인 광산과 지금 우리가 사는 주거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 예상대로 대폭발이 일어났지만 인간은 과학인들의 보호 아래 벙크에서 평화롭게 살았지. 그런데 소수의 과학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려 벙크 바깥에 있는 비사망인들을 데려오려 한 거야. 하필 그자들 중에 기계공학, 광산을 다스리는 유사지능 과학인들이 껴 있었지. 그들이 내부에서 광산을 폐쇄했어. 세월이 흐르고 과학인들이 하나둘 죽자 그들의 기술도 사라졌지.

www.kci.go.kr

특히 위와 같이 유사지능 과학인들, 곧 인공지능이 광산을 폐쇄한 사건은 오늘날 범용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킨다. 하지만 〈깊고 푸른〉에서 과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고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폭발을 예견한 과학자들 덕분에 인류는 절멸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잠수병으로 죽을 위험에 처한 청도 인공지능 수룡이 살려주었다. 〈심청전〉과 비교하면, 바다를 관장하던 용왕님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수룡으로 전락했지만, 심청을 구하는 역할은 반복된 것이다. 즉 과학이나 과학자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 타락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깊고 푸른〉의 벙크는 물질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이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남을 어떻게 챙긴단 말인가"(16쪽)라고 세상 탓을 하며 양심을 버린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화는 반사회적인 태도를 조장하므로 온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은 약게 살아야 해"(9쪽), "요령껏 살라고"(15쪽), "못 본 척하라고"(15쪽)라는 조언들은 의미심장하다. 청이에게 양심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교육하니 말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처세이자 자기가 지켜주고 싶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암암리에 주입하는 태도를 모방한 말이어서 진실성을 획득한다. 즉 청이 놓인 표면적 문제 상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와 세상을 구하는 일이며,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심청전〉의 모순을 좀 더 확장해서 반복한 일이다. 하지만 심층에서는 〈심청전〉의 모순을 전복한다. 〈심청전〉에서 청이 맞닥뜨린 상황과 행동은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충돌하지 않지만, 〈깊고 푸른〉에서는 충돌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야 아버지와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깊고 푸른〉은 〈심청전〉의 희생 서사를 저항 서사로 전복하며

www.kci.go.kr

부조리한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길은 순응과 적응만이 아니라는 진실을 보인다. 한편, 부조리한 사회에서 보신주의적 태도가 신념의 문제라기보다 약자의 방어적 태도임을, 그렇게 강자의 이기심과 약자의 이기심이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 아빠는 약게 살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걸로 해줄 수 있는 만큼 하며 살았다. 이제껏 내 앞에서 같지도 않은 허세를 떨어왔을 뿐이었다. …(중략)… 악랄하게 사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에요.(57쪽)

위의 심청의 말처럼, 심청의 아버지는 말로는 심청을 걱정하여 이기적으로 살라고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공장 동료도 심청이 인당수 깊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자, 15분 동안 버틸 수 있는 소형 산소통을 전해준다. 그리고 심청은 그 산소통 덕에 고장난 연구소 기기를 고쳐서 벙크의 덮개를 열어 태양과 자연을 회복시킨다. 이 작은 연대의 행동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이웃과 사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약게”, “요령껏”, “못 본 척” 살지 않은 청이가 이 사회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며 새 시대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전도된 가치를 다시 전복한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깊고 푸른〉은 여성 청소년의 희생 서사를 영웅 서사로 전복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심청의 영웅성은 그리 부각되지 않는다. 대개의 영웅들이 갖는 권력욕이나 야망이 심청에게 없을 뿐더러 심청을 추앙하는 민중들의 반응도 서술되지 않는다. 심청을 궁지로 몰고, 주민들을 착취하던 특고위, 정부 고위, 그리고 군인들은 심청이 데려온 안드로이드들의 코드 공격으로 일거에 무력해진다. 싱거울 정도로 무력해진 그들에게 심청은 복수는커녕 별 관심이 없다.

www.kci.go.kr

> 총은 작동하지 않았다. "마, 말도 안 돼! 특고위께서 새로운 세상에 맞는 법을 만들 거야." "그런 법 당신들이나 지켜요!" 인당수에서 연구소가 떠오르며 연구소로 가는 다리가 해변까지 이어졌다. 청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짓했다.(78쪽)

정부 고위 기술자가 이미 무너져버린 특고위의 권력에 기대 청을 협박해보지만, 청은 한마디로 무시한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청의 승리나 영웅성을 드러내기보다 그런 부조리한 권력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청이 성장했음을 보일 뿐이다.

요컨대 가부장주의와 효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고전소설 〈심청전〉의 희생 서사가, 디스토피아 SF 〈깊고 푸른〉에서는 부조리한 권력에 저항하고 보신주의적 태도를 경계하며 세상을 구하는 청소년의 성장 서사로 전복된 것이다.

4. 결론

어린이·청소년 SF는 일찍이 창작, 번성되어 SF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나, 20세기의 위계화된 시선 속에서 본격문학에 비해 그 미적,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태도와 편견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린이·청소년 SF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밝히는 비평을 지향하며,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슬비 SF 추천작들을 중심으로 최근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의 전복적 양상을 분석하며 그 특성 및 의의를 짚어 보았다.

대상 작품들에서는 주로 인물의 표상과 기능에서 전복적 양상이 두드러

www.kci.go.kr

졌다. 근대 사회와 이야기 관습에서 타자화되었던 어린이, 여성, 비인간 존재들을 능동적인 주체로 전복시키며 이야기의 개성과 재미를 창출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회 모순을 보다 신선하고 인상 깊게 폭로했다. 보다 심층적인 양상을 살피기 위해, 어린이 SF 〈다락방 외계인〉과 청소년 SF 〈깊고 푸른〉의 구조를 서술 요소의 반복과 전복의 역학으로 분석하였다.

〈다락방 외계인〉은 사업이 망하거나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도시 빈민, 난민들의 절박하고 치열한 생존 이야기이다. 강자 표상의 어른, 지도자, 외계인을 약자로 전복시켜 위기 앞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서로 연대하게 한다. 마침내 주인공 노아의 다락방은 집 잃은 자들을 수용하고 살리는 노아의 방주로 기능하여 어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어린이 노아의 이야기로 전복시킨다. 〈깊고 푸른〉은 고전소설 〈심청전〉을 SF로 다시 쓴 것이다. 용왕을 두려워하는 신화적 세계를 기술 과학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계로 변형해 〈심청전〉의 희생 서사를 저항 서사로 전복하며 부조리한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길은 순응과 적응만이 아니라는 진실을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 어린이·청소년 SF는 현실의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반영하며 그 해결의 주체로 어린이·청소년 인물을 창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SF 속 어린이, 청소년은 대부분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양심과 용기, 연대의 힘으로 해결한다. 이 점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어린이·청소년 SF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점과 다르며,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문학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희생 서사 비중이 적지 않았던 점과도 다르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약자나 사회화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저항하는 주체이자,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며, 그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나아가 근대 인간주의, 물질주의, 남성주의, 정상주의 등을 성찰하고 대안

www.kci.go.kr

서사를 모색하는 데 어린이·청소년 SF가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어린이·청소년 SF의 특징 중 하나인 전복성을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규명하고, 나아가 어린이·청소년 SF의 사회적 가치를 밝힌 의의가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2022년 보슬비 SF 추천작

김이환, 「구름이는 어디로 갔나」, 『일상탈출구역』, 책담, 2022.

박애진, 「깊고 푸른」,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 사계절, 2022.

은경, 『애니캔』, 별숲, 2022.

이귤희, 『다락방 외계인』, 해와나무, 2021.

천선란, 『나인』, 창비, 2021.

2023년 보슬비 SF 추천작

길상효, 「아무 날도 아니어서」, 『2100년 12월 31일』, 우리학교, 2022.

송아주, 『하늘 세숫대야 타고 조선에 온 외계인 나토두』, 도토리숲, 2022.

이민항, 『양자역학소녀』, 다른, 2023.

지슬영, 『영원한 페이스메이커』, 별숲, 2023.

청예, 『사탕비』, 고즈넉이앤티, 2023.

최영희, 「불을 지피는 악마들」, 『종말의 아이들』, 소원나무, 2022.

2024년 보슬비 SF 추천작

김동식, 『우주학교』, 학교도서관저널, 2024.

듀나, 「자코메티」, 『녹아내리기 일보 직전』, 문학동네, 2024.

문유운, 「틈새의 클로버」, 『도마뱀 구름의 꼬리가 사라질 때』, 사계절, 2023.

문이소, 「소녀 농부 깡지와 웜홀 라이더와 첫사랑 각성자」, 『내 정체는 국가 기밀, 모쪼록 비밀』, 문학동네, 2023.

박선화, 『우주가족을 찾아라』, 소원나무, 2024.

송우들, 『니아』, 씨드북, 2024.

2025년 보슬비 SF 추천작

강담마, 『쥐들 G들』, 밝은미래, 2025.

김두경, 『옷산 수색대』, 비룡소, 2024.

이지아, 『우주의 별일』, 미래인, 2025.

www.kci.go.kr

조나단, 『미르난데의 전사들』, 이지북, 2025.

2. 논문과 단행본

경소현, 「판타지 동화의 카니발적 특성과 유형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김민령, 「포스트 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아동청소년 SF 서사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9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269-299쪽.

김유진, 「최근 SF 어린이청소년문학의 여성주의적 분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203-228쪽.

김중선, 「환경동화에 형상화된 동물의 삶과 아동」,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4, 43-97쪽.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04.

박성애,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323-350쪽.

박성애, 「한국 아동서사문학의 '학교' 공간에 나타나는 권력의 양상과 전복의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6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279-307쪽.

송방근, 「황선미 동화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송수연, 『우리에게 우주가 필요한 이유』, 문학동네, 2022.

유희경, 「힘의 관점에서 살펴 본 2000년대 이후 한국 아동문학 연구-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참조하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이호, 『서사적 재현의 역학-반복과 전복』, 서강대학교출판부, 2020.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0.

로즈 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

브라이언 애터버리 , 『판타지는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 신솔잎 역, 푸른숲, 2025.

Darko Suvi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Peter Lang Gmbh, Internationaler Verlag Der W, 2016.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Subversive Nature of Recent Children's and Young Adult Science Fiction in Korea - Focusing on 'Bosulbi SF' Recommended Works

Choi, Bae-Eun(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offer a critique that uncovers the social value and role of children's and young adult science fiction, with the goal of exploring its potential. To do so, it analyzes the subversive elements of recent children's and young adult science fiction, identifying their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The primary works under analysis are two highly subversive pieces recommended in 'Bosulbi SF': the children's SF *The Alien in the Attic* and the young adult SF *Deep and Blue.*

The Alien in the Attic is a desperate and intense survival narrative about those who have lost their homes due to a business failure or war. It overturns dominant symbols of adults, leaders, and aliens, reversing them as the vulnerable, and it promotes solidarity centered on children in the face of crisis. Ultimately, the protagonist Noah's attic becomes an ark that shelters and saves the displaced, transforming the adult Noah's ark story into a child Noah's story. *Deep and Blue* is a science fiction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 *Shim Cheong Jeon*. It reimagines the mythical world that fears the Dragon King as a dystopian society ruled by technological science, subverting the sacrificial narrative of *Shim Cheong Jeon* into a narrative of resistance, showing that true growth in an absurd society does not come solely from compliance and adaptation. In this way, Recent Korean children's and young adult SF earnestly reflects social issues and dedicates itself to creating child and adolescent protagonists as agents of solution. This is significant because it does not simply see children and adolescents as weak, as objects of protection or socialization, but as active, resistant subjects with the

www.kci.go.kr

power to resolve complex challenges, and this expectation is reflected in the stories.

This study identifies one of the key features of Recent Korean children's and young adult SF—its subversive nature—by proposing a new analytical approach, and further reveals the social value of children's and young adult SF.

(Keywords: children's and young adult SF, subversiveness, child Noah, resistant Shim Cheong)

논문투고일 : 2026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0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6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8일

www.kci.go.kr